

# 광주서 20세기 미국 추상표현주의 대작 만난다

오늘 ACC재단 '뉴욕의 거장들' 개막  
'잭슨 폴록' 등 21명 작가 36점 선배  
현대미술 중심지 뉴욕 예술세계 조망

20세기 현대미술 중심지로 떠오른 뉴욕의 예술세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규모 기획전이 광주에서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18일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을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뉴욕 유대인박물관과 이스라엘박물관, 폴록-크레이스너 재단의 주요 소장품 36점을 선보인다. 추상표현주의 대표 작가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를 포함해 총 21명의 작품이다.

전시는 6개 섹션으로 나뉘며 '전후 뉴욕'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 탄생한 다양한 실험과 미술사적 전환을 집중 조명한다.

1부 '추상표현주의'에서는 관습과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고자 했던 예술가들의 도전 정신을, 2부



현대미술의 황금기를 이끈 '뉴욕의 거장들' 전시회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시관에서 프레스 오픈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20세기 현대미술의 흐름을 바꾼 미국 추상표현주의 작가 잭슨 폴록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꿈을 넘어서는 도전'에서는 초현실주의와 무의식의 탐구, 그리고 폴록의 액션페인팅이 펼쳐진다.

3부 '어반 캔버스'는 1950년대 뉴욕의 도시성과 추상적 영감을 담은 작품을 통해 당시 예술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4부 '추상과 색면회화'는 바넷 뉴먼 등의 작품을 통해 색채와 형태의 조화를

살핀다. 5부 '미니멀리즘과 그 후'에서는 회화·조각의 경계를 허문 실험들을 조명하고, 6부 '액션페인팅 다큐멘터리' 섹션은 한스 나무스가 기록한 폴록의 작업 영상을 통해 작품 세계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물감을 캔버스에 뿌리는 액션페인팅 기법의 정점을 보여주는 잭슨 폴록의 '수평적 구조', 마크 로스코의 희귀한 초기작 '십자가'가 포함됐다.

특히 2천억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되는 '수평적 구조'는 이번 전시 포스터 이미지로도 사용된

작품으로 전시의 상징이자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게 될 핵심작이다. 바닥에 펼쳐진 캔버스 위에 물감을 흘뿌리는 독자적 방식으로 완성된 이 작품은 화면 전체를 에너지로 채운 듯한 생동감을 자아내며, 작품 앞에 섰을 때 그 압도적 규모와 밀도로 강한 시각적 충격을 전한다.

이 밖에도 아돌프 고틀리브, 바넷 뉴먼, 모리스 루이스, 리 크레이스너 등 뉴욕 화단의 핵심 인물들이 남긴 원화가 대거 소개된다. 폴록의 작업 방식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매주 수·금·토요일에는 전문 도슨트 해설이 운영되며, 광주·전남 지역민에게는 관람료 20% 할인이 제공된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현대미술사의 전환점을 이룬 세계적 거장들의 원화 작품을 광주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지역과 세계를 예술로 연결하는 재단의 역할을 계속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는 오는 10월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6관에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 집중호우 대비 "시·도민 안전 최우선" 총력

姜시장, 피해 현장·재해우려지역 점검  
金지사 '先조치後보고' 선제 대응 지시

광주·전남지역에 시간 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광주시·전남도가 시·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시청 재난 상황실에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해 각 부서 및 자치구로부터 강우 상황과 비상 대응체계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하천 진출입로 및 둔치 주차장 통제 여부 ▲저지대 빗물받이 및 우수관 점검 ▲과거 침수이력지역 대비 ▲지하차도 통제 상황 ▲공사 현장 안전 관리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강 시장은 "하천 진출입로와 둔치 주차장은 전 구역 통제가 완료됐는지, 저지대 빗물받이와 덮개에 낙엽 등이 쌓여 배수를 방해하는 곳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광천사거리 근처와 기아차 앞 도로 등 침수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즉시 조치를 지시하고 농성역·백화점, 백운교차로·대성초 가는 길 등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시장은 "내일부터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오후 '화순 서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태세 구축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예상되는 경보 단계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호우 대비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재난 협업부서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 등과 분야별 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피해지역 중심 점검 강화 ▲빗물받이·배수로 전수점검 ▲침수 예상 지역 사전 통제 ▲담·저수지 저수율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침수 우려 지역은 사전에 신속히 통제하고 야간 대피가 어려운 만큼 일몰 전 대피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산사태 우려 지역이 가장 걱정되는 만큼 선제 대피를 위

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무원 담당제를 제대로 이행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안전지킴이 등 지역 인력을 적극 활용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 마을방송 만으로는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지역 주민에게 직접 방문·안내하는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주택·농경지 침수, 제방 유실 등 상시 침수지역인 화순 서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해예방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강우에 따른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 "국민주권시대 실현 위해 지방분권 절실"

김영록 지사 제77주년 제헌절 메시지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메시지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주권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분권을 위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방안으로 재정분권 등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사무 재원에 대한 영구 보전이 필요하다"며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은 현재 내국세의 19.2%에서 24.2%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하고, 장기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최소 70대 30, 궁극적으로는 50대 50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자치입법권 확대도 필요하다"며 "현재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만 가능한 조례 제정권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국기임을 명시하는 개헌과 독일과 프랑스식의 지역대표형 상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 국힘 전남도당 위원장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17일 "김화진 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4년 연속 전남도당을 이끌게 된 김 위원장은 "30여년 정치생활 동안 전남 지역 곳곳을 누비며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도민 목소리를 더욱 대변하고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후보로 당당히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당 조직 쇄신과 변화를 위한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전남 22개 시·군별 당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당원과의 소통 행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한 사람, 한 보험회  
전 국민,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 알바 댄스대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